

국내 분류학 관련 문헌 분석: 1945-1992

Characteristics of Classification Literature

Published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1945-1992.

정연경

상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Chung, Yeon-Kyoung,

Dept. of Library and Info. Sci.
Sangmyung Women's University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학관계문헌색인, 1945-1974와 한국문헌정보학 색인, 1975-1992를 바탕으로 해방 후 48년간의 한국 분류학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연구해 보았다. 이병수, 임중순, 천혜봉, 배영환, 이경호 등에 의해 많은 문헌이 발표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에 가장 많은 관련 문헌이 발표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대학 논집과 전공학과의 학보에도 많은 문헌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비교해 보면 분류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단체의 구성과 그 단체가 주축으로 만들어지는 분류 전문 학술지의 발행이 시급하다.

1. 서론

외국의 문헌정보학 관련 전문 색인지는 상당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간행된 문헌을 알아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없었던 반면에 국내에서 간행된 문헌은 관련 색인지의 부족으로 적절히 활용을 못해 왔음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국 도서관학관계문헌색인, 1945-1974와 한국문헌정보학색인, 1975-1992의 출현으로 해방 후 약 48년간의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 관계 문헌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48년간 국내 분류학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그간의 분류학계의 업적을 개관해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사서는 인류 문화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수집한 문헌을 체계적인 순서에 의해 배열하는데 이 배열을 일반적으로 분류라고 한다. 그래서 Malby는 도서관의 근본은 장서이고 사서직의 근본은 분류라고 할 정도로 분류는 도서관학의 오랜 전통적 이론뿐만 아니라 도서관 실무의 핵심을 이루어왔다. 한국에서의 급속한 도서관과 관련학과의 성장은 분류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945년부터 1992년까지 간행된 분류학 문헌의 주요 저자 및 주요 간행물 그리고 문헌의 특성을 초창기(1945-1974)와 중반기(1975-1992)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분류학 관련 연구를 이끈 주요 저자는 누구인가?
2. 분류학 관련 주요 간행물명은?
3. 분류학 관련 주요 간행물의 형태는?
4. 분류학 관련 문헌의 연도별 빈도는?

본 연구의 데이터 집단은 한국도서관학 관계문헌색인, 1945-1974와 한국문헌정보학 색인, 1975-1992의 분류학 관련 항목들이다. 이 두 색인집은 한국에서 발행된 단행본, 정기간행물과 비정기간행물, 석박사 학위 논문 및 각종 연구 보고서 중에서 도서관학, 서지학, 정보학, 출판 및 인쇄 등의 연관 분야 문헌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연구 주제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용하였다. 한국도서관학관계문헌 색인집에서는 '분류'와 '분류표'라는 주제명 표목을 선택하여 총 109개의 항목을 초창기 분류학 문헌으로 뽑았고 한국문헌정보학색인에서는 '분류, 분류법'을 주제명 표목으로 선택하고 '원목, 관종별 분류도 보시오'라는 참조를 바탕으로 총 195개 항목을 중반기 분류학 문헌으로 정하였다.

11. 결론

도서관학 전체 문헌 수가 1945년부터 1974년까지 30년간 약 3천건에서 1975년부터 1992년까지 18년간 약 8천건으로 2.7배 늘어난 것에 비하면 분류학 관련 문헌은 아주 크게 성장한 것이 아니기는 하나 109개의 항목에서 195개의 항목으로 거의 2배에 가깝게 늘어나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1. 주요 저자

1) 초창기: 1945-1974 (109건)

이 시기의 주요 저자로는 이병수(23), 임종순(17), 천해봉(12), 장일세(9), 이조혁(6), 손정표(5) 등을 꼽을 수 있다. 총 35명이 관련 문헌을 발행했으며 위의 6명이 이 기간 동안 5개 이상의 문헌을

발표한 저자들이다.

2) 중반기: 1975-1992 (195건)

이 시기의 주요 저자로는 배영활(10), 이경호(10), 남태우(9), 김명옥(8), 이병수(8), 오동근(7), 이창수(6), 정옥경(5), 현영아(5)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병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새롭게 나타난 분류학계의 연구자들이다. 총 107명이 분류에 관한 문헌을 발행했으며 초창기에 비해 많은 저자 수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증가를 보여준다. 위의 9명이 이 기간동안 5개 이상의 문헌을 간행한 저자들이다.

3) 전체 시기: 1945-1992 (304건)

초창기와 중반기를 합쳐 보았을때의 10개 이상의 문헌을 발표한 주요 저자로는 이병수(31), 임종순(18), 천해봉(13), 배영활(10), 이경호(10) 등을 꼽을 수 있다. 총 133명이 304개의 분류에 관한 문헌을 발행하였다.

2. 주요 간행물과 그 특성

1) 초창기: 1945-1974

초창기 도서관학관련 색인지에는 단행본이 포함되지 않아 그 당시의 단행본 간행 상황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화여대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2개 나왔으며 가장 많은 문헌을 실은 잡지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간행된 국립도서관보(16)로 후일 도서관(24)으로 개칭되어 총 40개의 분류학 관련 문헌을 발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도서관 협회의 도협월보(25), 국회도서관의 국회도서관보(19),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문화(6) 순이다. 대학기관의 간행물로는 성균관대 도서관학과의 한국비블리오(1),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의 인문과학(2)과 이화여대 도서관학과의 도서관학보(2)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문교부, 문화재

관리국, 교육 관련 연구소나 도서관 연구회 등 총 16종의 잡지가 분류학 관련 문헌을 실었다.

2) 중반기: 1975-1992

중반기 분류학 관련 문헌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분류학 관련 단행본이 20권이 나 나왔으며 학위논문도 박사학위 논문이 성균관대(2), 연세대(1), 중앙대(2)에서 총 5개 논문이 나왔으며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경북대(6), 성균관대(3), 성신여대(1), 연세대(7), 이화여대(6), 중앙대(6), 청주대(3)와 한양대(5)에서 총 37개 논문이 나왔다.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교에서의 이 분야 관련 논문은 특히 주목할 만하며 초창기에서 벗어나 분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증가를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분류학 관련 문헌을 실은 잡지는 초창기 때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35)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회도서관보(13)로 도협월보(3)는 분류학 관련 문헌의 간행이 초창기에 비해서 부진했다. 한국도서관학회의 도서관학(10)과 경북도서관학회의 도서관학논집(10)이 발간 후 이 분야 문헌을 꾸준히 실어서 학회지에서도 이 분야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초창기에 비해 더욱 두드러진 특성은 중반기에 들어 17개 대학의 연구논집에 분류학 관련 논문이 총 25개나 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학 논집 자체의 출현은 그만큼 대학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며 분류학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학보나 문헌정보학보도 7개 대학의 전공학과에서 새롭게 간행되어 총 12개 문헌이 발표되었다. 이외에도 도서관연구(2), 도서관문화(2), 한국의학도서관(2) 등 총 12개의 새로운 간행물에서도 관련 문헌을 실어 전공 관련 잡지와 분류학 연구 문헌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3. 간행연도별 빈도

초창기 분류학 문헌의 간행연도별 빈도를 살펴보면 1960년(16)이 가장 많았고 1966년(15)과 1967년(15)이 그 다음이었으며 1968년 이후부터 1974년까지 문헌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중반기로 접어들어서도 1970년대 후반까지 문헌의 발행이 미진했던 반면에 1980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25)에는 가장 많은 문헌이 나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도 약간 줄어들었지만 계속 연구문헌이 나오고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관련 색인지를 바탕으로 분류학이라는 한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한국 분류학계는 지난 반세기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초창기에는 이병수, 임종순, 천해봉, 장일세 등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중반기에 들어서 배영환, 이경호, 남태우, 김명옥, 오동근, 이창수 등이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다. 주요 간행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도서관이 가장 많은 관련 문헌을 실었다. 초창기에는 2개의 석사학위 논문과 총 16종의 잡지만이 이 분야의 문헌을 실었던 반면에 중반기에는 5개의 박사학위 논문과 37개의 석사학위 논문이 나왔고, 3개의 전공 학회지와 17개의 대학 논문집, 7개의 전공학과 학보에 분류학 관련 문헌이 실려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보여주었다. 간행연도별로 살펴보면 1960년과 1960년대 중반에 상당수의 문헌이 나오다가 1960년대 말부터 줄기 시작해서 1970년대 후반까지 계속 적은 수의 문헌만으로 유지하다가 1980년대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1989년에는 가장 많은 수의 문헌이 나왔다. 그 후로도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꾸준히 문헌이 나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분류학계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기는 하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분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 단체가 매우 부족하다. 외국의 경우, Classification Research Group(CRG)같이 분류의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는 연구 집단이나 FID의 Committee on Classification Research (FID/CR)같이 분류에 관한 현행 연구 보고, 관련 교육의 증진, 연구자 교류, 회의의 주선, 연구 보고서의 간행을 담당하는 국제적 기관이 있고 더 나아가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ASIS)와 같은 학회에 Special Interest Group on Classification Research (SIG/CR)이 있어 학회 회원들이 인간과 기계에 의한 분류 및 색인에 관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회나 협회, 국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연구 분과 위원회가 매우 미약하며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분류만을 다룬 학술 전문잡지가 없다. 독일에서는 1974년에 이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이라는 학술지가 간행되기 시작해 최근 Knowledge Organization으로 잡지명을 바꾼 분류학 관련 전문 학술지가 있다. 이 간행물은 분류와 색인에 관한 기사나 연구 보고서를 싣고 이 주제와 관련된 도서, 보고서, 논문에 관한 현행 주지 서지까지도 포함하여 이 분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선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쳐 새분된 전문 분야별 학술잡지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서서히 연구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를 중심으로 전문 학술지의 간행을 시도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이는 분류학이라는 한 분야가 아닌 문헌정보학이라는 한 학문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되리라 믿는다.

- Chung, Yeon-Kyoung.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of Classification Systems During the Period 1981-1990 : A Reference Study*.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93.
- Maltby, A.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London, Andre Deutch, 1975.
-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3r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4.
- Wynar, Bohdan S.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1980.

<참고문헌>

- 박준식 편. 한국도서관학관계문헌색인 1945-1974.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6.
- 박준식. 이해란 공편. 한국문헌정보학색인 1975-1992.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4.